

“여름 휴가 목포로 오세요”



지난달 28일 서울 인사동에서 목포 세일즈행사 일환으로 열린 길거리 퍼레이드.

목포시, 서울·대전서 ‘市 홍보 세일즈’
오정해 팬 사인회·판소리 공연도 가져

목포시가 휴가철을 앞두고 서울과 대전에서 ‘찾아가는 목포 홍보 세일즈’ 행사를 펼쳤다. 목포시는 외달도 해수욕장과 ‘2007 해양문화축제’를 앞두고 수도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달 28·29일 이틀간 서울 인사동에서 다양한 홍보 행사를 전개했다. 이번 홍보 행사에는 영화배우 오정해씨의 목포사랑 팬 사인회를 비롯해 극단 갯벌의 판소리, 마당극, 로드쇼, 길거리 퍼레이드, 목포 사투리 경연대회 등이 펼쳐졌다. 또 부대행사로 마련된 관광 사진 전시, 홍보 영상물 상영, 지역 특산물 전시 코너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맛과 맛, 빛의 도시 목포’의 아름다운 사진과 지역 특산물에 관심을 나타냈다. 목포시 공무원들은 서울시민들에게 외달도 해수욕장과 해양문화축제 홍보물을 나눠 주며 여름휴가를 가족과 함께 목포에서 보낼 것을 호소했다. 서울시민 김모(27·종로구)씨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처럼 다양한 홍보활동을 벌인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기회가 된다면 여름 휴가철에 전남 서해안 일대를 방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시는 대전시 중구 응봉동이 문화의 거리에서도 충청권 시민들을 대상으로 목포 해양문화축제와 야간경관조명 등 불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 등을 집중 홍보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차범석 선생 대표작 연극 ‘산불’ 공연

22일 목포 시민문화체육센터

연극 ‘산불’이 오는 22일 목포 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공연된다. 목포시는 목포 출신으로 국내 희곡계의 거목인 고 차범석 선생의 유업을 기리기 위해 국립극단을 초청, 이번 공연을 마련한다. 1962년 발표된 연극 ‘산불’은 6·25 직후 소백산맥의 한 두메마을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중심으로 이데올로기

대립과 인간 본연의 욕망을 세밀히 묘사해 ‘사실주의 희곡의 최고봉’으로 평가되고 있다. 관람요금은 일반 4천원~1만 2천 원으로, 지정 좌석제와 좌석예매제를 시행한다. 한편 지난해 6월 타계한 차범석 선생은 ‘산불’ 등 90여편의 주옥같은 작품을 남겼으며 문예진흥원장과 대한민국 예술원 회장을 역임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목포 연안통발 공동체

최우수 공동체 선정

‘목포 연안통발 자율 관리 공동체’가 전국 최우수 공동체로 선정됐다. 목포 연안통발 공동체는 최근 해양수산부가 전국 542개 자율관리 어업 공동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업 추진 평가에서 최우수 공동체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목포 통발 공동체는 선박 1척당 통발 어구 수를 종전 2천~2천500개에서 1천500개 이내로 줄이고, 그물코 규격도 35mm로 상향 조정해 수산 자원 남획을 방지한 점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대파 모종 옮기기 “일손이 달려요”

무안지역 농민들이 대파 모종을 옮기느라 분주한 손길을 보이고 있다. 비닐하우스에서 자란 대파 모종은 이맘때 밭에 심어져 가을께 수확된다. /위직량기자 jrwi@

목포~진도 조도 쾌속선 취향

접안시설 부잔교 설치... 관광객 유치 기대

진도 조도에 새로운 접안시설이 설치돼 쾌속선 취향이 가능케 됐다. 이에 따라 주민 불편 해소는 물론 관광객 유치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진도군은 10억원을 들여 지난달 26일 조도 관문인 창유항과 성등포항에 접안시설인 부잔교를 설치했다. 그동안 창유항과 성등포항에는 접

안 시설이 없어 소형 선박 및 여객선, 관광선 등의 접안에 많은 불편이 뒤따랐다. 그러나 민선 4기 출범이후 진도군이 목포 지방해양수산청에 지속적으로 부잔교 설치를 요청해 지역민 숙원사업이 성사됐다. 특히 부잔교 설치로 84t급 쾌속선

이 취향, 목포까지 소요시간이 1시간 대로 줄어들게 돼 관광객 유치가 기대되고 있다. 부잔교는 조석간만의 차이가 큰 지역에 설치돼 조위에 따라 오르 내리면서 여객선과 카페리선 등의 접안을 돕는 시설이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구매상품 냉장·냉동보관 해 드려요

농협 목포유통센터

휴가철 특별서비스

농협 목포유통센터가 본격적인 무더위와 휴가철을 맞아 구매상품을 냉장·냉동 보관해주는 특별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목포유통센터는 냉장·냉동시설을 별도로 갖추고 고객들의 생수 및 음료 등 구매품을 최대 1개월까지 냉장·냉동실에 보관해주는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또 보관 후 직접 찾으러 오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냉동

차로 직접 배송해 주는 무료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김세익 사장은 “이상고온 현상으로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로 식품의 신선도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매장에서 가정까지 책임 보관·배송으로 지역 고객들에 신선도를 최대한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협 목포유통센터는 농·축협 통합 7주년을 맞아 농산물을 포함한 필수품 200여종을 20%에서 최고 50%까지 할인 판매하고 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진도 초등학교에 잔디구장

주민들 체육공간 활용 기대

진도 초등학교 운동장에 인조 잔디가 깔렸다. 최근 준공된 진도초 인조 잔디구장은 총 6억원이 투입돼 축구장 1면과 육상트랙(직선 4레인, 곡선 3레인)이 설치됐다. 인조잔디는 유지와 관리 비용이 저렴한데다 폴리우레탄 재질로 넘어져도 화상 위험이 없는 등 천연잔디와 거의 차이가 없다. 특히 휴식 공간 등 부대시설이 갖춰져 있어 학생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이 기대된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노인 건강 대축제 목포서 열린다

10월 12일부터 3일간

목포에서 ‘건강하고 당당한 노년 생활’이라는 주제로 오는 10월 12일부터 3일간 ‘제 2회 전국 노인 건강 대축제’가 열린다. 이번 축제에서는 건강체조와 댄스 스포츠, 배드민턴, 게이트볼 등 13개 주요 행사와 함께 파크 골프, 노인 해변 가요제, 실버 미인대회, 노인 학대 예방 캠페인 등 다채로운 참여·체험 행사가 열린다. 노인 축제로는 가장 규모가 큰 이번 축제를 위해 목포시는 지난 달 28일 보건복지부, 전라남도 등 유관기관, 민간단체, 전문가 등으로 행사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또 행사 프로그램을 기획, 연출할 대행사 선정 공모에 들어가는 등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축제는 전국 각지에서 3천여 명의 선수단과 3만여 명의 관람객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돼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光 州 日 報 지사안내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
여수 653-8444 (686-8584)	목포 276-9200 무안 452-8535	나주시 332-5544 나주군 332-7764
광양 792-8111	해남 534-5151	화순 374-4423
보성 853-9700	완도 554-6677	장성 392-7000
순천 746-8111	영광 351-0055	담양 383-8111
고흥 833-9900	신안 243-3758	영암 473-2340
북동 842-2121	진도 543-0100	장흥 863-8822
구례 783-8111	강진 433-8355	광산 944-0444
곡성 362-8111	함평 324-8111	

사계절 양잔디의 완성적인 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암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연말대박 이벤트	골프장	주소
12월 12일~15일	18홀, 4코스	목포시 암평동 111-1
12월 16일~19일	18홀, 4코스	목포시 암평동 111-1
12월 20일~23일	18홀, 4코스	목포시 암평동 111-1